

### 전남교육청,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협약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 26일 청사 5층 비즈니스실에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홍보·교육, 장애인 생산

품 판매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 확대와 함께 장애인 생산품을 다양화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협약으



로 도내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오늘 맺은 협약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의 기회가 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 포스웰,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3대 지원

포스웰(이사장 반점호)은 지난 26일 이웃사랑 실천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기 3대(500만원 상당)을(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서경석)에 전달해 주었다. 이날 전달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3대는 광양시여성상담센터, 광양시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우리지역아동센터 3곳에 전달되었다. 전달식에 참석한 포스웰 이성재 팀장은 “포스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포스웰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하

여 책임 있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현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랑나눔복지재단 김점현 국장은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적절한곳에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이웃을 살피는 사랑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웰은 임직원 급여의 1%를 포스코1%나눔재단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생필품 지원, 사랑의 밤차, 연합봉사나눔, 다문화가정 요리강습 등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영암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간담회

#### 격려 및 애rosa향 청취

영암군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연말을 맞아 자원봉사자 30여명과 함께 1년을 결산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한 해 동안 장애인복지관에 조건 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0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독려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는 각 분야 자원봉사자 대표의 소감발표와 건의사항 개선, 협조사항 전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

해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언젠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타인을 위해 헌신·봉사를 아끼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정신에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은 언제든지 영암군장애인복지관(470-6756)으로 연락하면 관련 분야의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무안군 운남면 지역사회협의체 봉사활동 연계 주거환경개선

무안군 운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종학, 박문재)는 24일 운남면 남·여 의용소방대(대장 성동호, 김선자)와 연계하여 관내 저소득층 3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하였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대상 세대인 김 모 씨는 타지에서 살다가 귀향한 장애인 가구로 도배·장판이 변색되고 벗겨져 있는 등 집이 매우 낡아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의용소방대원 20여명은 도배·장판·창호지 교체, 청소 등을 실시하였다. 김 모 씨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주택으로 벽지가 들뜨고, 훼손된 장판 등 추위

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환한 웃음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의용소방대장(성동호, 김선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보다 쾌적하고, 개선된 환경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 박종학 공동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를 해 주신 재능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법에 소외받지 않도록”...전북도, 무료 법률 상담

전북도는 도민에게 주 1회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희망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희망법률상담실은 이들 변호사가 주 1회씩 나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률문제의 1차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우선 상담대상이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